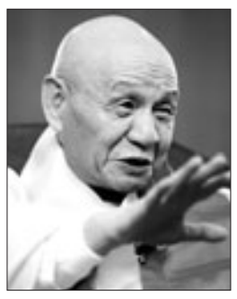
“서로 봤으면, 다 말하고 들었다”

백담사 하안거 해제, 무산 스님의 30초 一聲 ‘화제’



“나는 대중 여러분 한번 바라 보고 대중 여러분들은 나 한번 바라보면, 나는 내가 할 말을 다했고 여러분들은 오늘 들을 말을 다 들은 겁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 서로 한번 마주보고 그랬으면, 할 말 다하고 들을 말은 다 들은 겁니다. 오늘 법문은 이게 끝입니다.”

설악 무산 스님(조계종립기본선원, 신흥사 조실 · 사진)이 8월 5일 오전 10시 백담사 검인당서 열린 정유년 하안거 해제법회 현장서 한 법문의 전부다.

30초 정도 밖에 안되는 촌철살인 같은 법문을 남기고, 그것도 주장자 대신 손뼉으로 법문을 마친 설악 무산 스님은 일체의 설명과 사족없이 곧바로 법상을 내려왔다. 짧고 깊은 법문에 잠시 어안이 벙벙했던 참석 대중들은 잠시 후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노선사의 법문에 화답했다. 검인당 법회 현장을 나가는 이들은 승속을 불문하고 저마다 짧지만 강한 울림이 남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심정을 피력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김진선 前 강원도지사는 “조실 스님의 법문은 역대 법회중 가장 짧았지만, 가장 긴 울림과 여운이 남는 명 법문이었다”고 평했다. 서울서 백담사 계곡에 휴가를 왔다가 조실 스님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법회에 참석했다는 이 청정심 보살(62)도 “처음에는 너무 법문이 빨리 끝나 폭염에 괜히 왔나 실망했는데, 법회 현장을 나서면서 무산 스님의 법문을 되새겨보니, 백가지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말고 내 자신의 내면을 닦는 실천 수행을 하라는 직설적 당부가 아닌가 생각됐다”고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양양 낙산사 前 주지 무문 스님도 “사부대중을 향한 조실 스님의 강렬한 선기가 느껴진 법문이었다”고 밝혔다. 설악 무산 스님은 3년 전부터 안거법회 현장서의 법문을 언론과 세간의 주목이 부담스럽다며 조계종 종정 스님의 법어를 대독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짧은 선법문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김주일 기자

“한반도 위기… 불교계 공동 대책 필요”

대북 전문가들, 평화적 분위기 조성 ‘한 목소리’

8.15광복절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전환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 불교계 대북 전문가들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교계 역할을 주문했다. ‘8월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될 만큼 최고조에 이른 현 대결 양상을 전 민족적 위기로 인식하고 종교계도 공동 대처에 나서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다수의 불교계 대북 전문가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 종교 간 교류를 비롯해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종교분야 남북 교류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7월 6일에는 남북과 평화적 대화 의지를 피력한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데 따른 반향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8월 중순 괌 포위 사격’을 공언하는 등 위협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남측 정세가 바뀌며 북측도 사회문화 교류를 재개하며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이라 예상했는데,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만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핵실험을 지속하며 남북 협상에서 우위를 갖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 같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가 와해될 경우 국민 불안이 높아질 점을 우려해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 정책을 펼친다고 보인다”고 평했다. 이 가운데 종교계가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는

평화 분위기 조성 종교 나서야
‘종전 촉구 운동’ 등 방법 제안
하반기 신계사 · 영통사 법회
급변 정세 대비해 지속 추진

목소리가 높다. 8.15남북합동법회 등 남북 불교교류 사업이 잇따라 무산된 상황에서 이에 좌절하기보단 국가적 위기 상황에 함께 대처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창희 교수는 “불교계에서 ‘종전(終戰) 선언 촉구 운동’을 주창하는 것은 어떤가. 사실 한반도는 분단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군사적 위기가 필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불교는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남북 및 북미 간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데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장도 “전 민족적인 위기 앞에 불교계가 평화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한다. 이번 ‘8.15 한반도 평화기원법회’도 평화적 대화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종교계는 지엽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스님은 북미 관계가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스님은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미 대결 양상에서 정부가 국민 안위를 위해 제 역할을 찾아야한다”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최종집행권자의 무책임이자 무관심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8월 15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기원법회’는 남북 정세 여파로 합동법회 및 공동발원문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는 하반기 계획된 조계종의 ‘신계사 낙성 10주년 공동법회’ 및 천태종의 ‘영통사 복원 12주년 법회’ 등 개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상황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급변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 언제 화해 국면으로 들어설지 모른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창희 교수는 “신계사 공동행사가 무산됐다고 하기엔 시기상조다. 남북관계에는 항상 전환 시점이 존재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보였고 북한도 군사적 위기 상황이 촉발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언제든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재산 국장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 후가 전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국장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항상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 됐다. 이번 UFG 훈련 후에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서 보다 주도적 역할에 나선다면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계사 공동법회를 위해 북측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면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사무국장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북측에 팩스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회신이 올 경우 즉각 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선원수좌회는 8월 9일 대구 서봉사서 긴급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직선제와 적폐청산을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선원수좌회 ‘전국승려대회’ 연다

8월 9일 서봉사서 결의… 장소 · 일시 추후 결정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대표 의정, 이하 선원수좌회)가 전국승려대회를 연다. 선원수좌회는 8월 9일 대구 서봉사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직선제와 적폐청산을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 의장 월암 스님, 장로선림위원 진환 스님, 명진 스님, 김천 수도암 선원장 원인 스님 및 봉암사 · 해인사 · 백양사 수좌 스님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승려대회 개최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다만 대회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수좌회 임원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대표 의정 스님은 “한국불교 발전과 청정승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종단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선원수좌회는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가 제작한 〈조계종 적폐에 대한 10문10답〉이란 책자를 참가 대중에게 전달했다. 대구=하성미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버리고 떠나기, 새 삶의 통로

⑤ 스티브 잡스와 禪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에 걸려 56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혁신의 자취는 계량화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는 컴퓨터에 선불교의 옷을 입힌 선(禪) 디자이너이자 애플 회사를 창업한 기업가였다. 그는 대학 1학년 때 중퇴한 뒤 사과농장에서 히피생활을 하면서 일본인 선승 오토카와 고분 치노를 스승으로 맞아들였다고 한다. 이후 인도여행을 하고나서 선불교에 더욱 심취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선불교 정신을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에 접합시킨 그의 발상이다. 조주 선사가 선불교 정신을 차(茶)로 녹여내 일상으로 끌어낸 혁명과 흡사한 느낌이다! 불교를 중국화한 선불교는 이미 남전, 임제 같은 대선사들에 의해 검증이 끝난 인류의 정신적 자산이다. 좌선을 활용한 ‘집중하기’, 버리고 비우기를 통한 ‘단순해지기’,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고정관념 깨기’ 등이 선불교가 강조한 가치들이 아닐까.

법정 스님께서도 선은 고정관념 내지는 획일성을 깨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선은 모방과 획일성을 배격한다. 저마다 업을 달리하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어째서 남의 흉내나 내면서 범속하게 살려 하는가.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일깨워 개척하지 않고 남이 닦아놓은 남의 길을 안일하게 가려는가. 선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창조성에 몰입하여 끝없는 빛과 한없는 목숨을 드러내는 일인 것이다.”

특히 법정스님은 버리고 떠나기를 강조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이다.”



일러스트 · 정윤경

선사들이 남긴 가르침은 우리들 주위에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스티브 잡스처럼 물질문명에 결합시킨다거나 조주선사처럼 일상생활에 구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고 보면 조주선사나 스티브 잡스는 구름 위에 머물러 있던 고고한 선불교를 형이하학적인 세계로 끌어내린 선의 경영자가 아닐까 싶다.

어린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믿던 종교를 버린 것도 극적이다. 스티브 잡스는 열세 살 때까지 다니던 교회를 돌연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가 구독하고 있던 〈라이프〉잡지 표지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나이지리아의 아이들이 실린 것을 보고는 주일학교 목사를 찾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네요”하고 질문했는데, 목사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자 하나님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그때부터 스티브 잡스에게는 이미 불연(佛緣)이 있었던 것도 같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